

현대사범이란 무엇인가?

제1기 전여대협 건설을 위한

각층 토론자료

서 전국단위의 조직을 건설하였고, 교육계열에서는 전여사범대학장협의회, 교육대학총연합회의 전국조직을, 간호대, 약대, 의대에서도 각각 전국의 위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각 단위의 고문을 심화시키고 내용물을 풍부하는 등 많은 부문 계열속에서 전국단위 건설로 큰 무명들을 일구어오르게 되었다.

전여대협 또한 많은 연대 투쟁의 경험 속에서 그 성과점을 총화하면서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 연대조직을 일구어가게 되었다.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 연대조직을 건설하고자 83년 처음 건설준비위원회 출범을 결성하기전까지 우리 여학생운동의 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여대협 건설을 준비한 6기까지의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건준위 제7기를 건설 제1기로 일대 도약하려는 지금 시점을 살펴보자.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전국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씨름을 운영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인 **수신 : 각 학교 여학생회 간부님들**에가려는 노력을 해 나갔다.

84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많은 학교들이 제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여 **별신 : 전여대협(건) 집행위** 각종 가두투쟁을 여학생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건준위(TOMBOW)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등1등을 통해 **자료 : 전여대협(건) 역사** 전여대협 건설을 모색하였다.

비합법노동전의 현상을 극복하고 중대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여학생운동의 실행을 모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전여대협(건) 제7기 의장 추선식** 제, 군부독재타도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생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개정 투쟁등 민주헌법에서 담겨져야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전여대협 건준위 6년의 역사를 돌아보다

연대사업이란 무엇인가?

보다 큰 힘, 성과를 만들어가기위한 노력이 연대사업이며 그 산물이 연대 조직인 것이다. 투쟁의 현장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단위들이 함께 힘을 합쳐 투쟁했을때, 보다 강위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보다 큰 성과를 내어 올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문 계열에서 지역적, 전국적 연대를 하면서 전국연대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나 87년 6월 대국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운동은 각계급, 계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기조직, 자기운동의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속에서 부문 계열운동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다.

신앙을 매개로 전국가톨릭학생회연합, 불교학생회연합등 많은 종교부문에서 전국단위의 조직을 건설하였고, 교육계열에서는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교육대학총연합등의 전국조직을, 간호대, 약대, 의대에서도 각각 전국의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각 단위의 고민을 심화시키고 내용들을 풍부화하는 등 많은 부문 계열속에서 전국단위 건설로 큰 투쟁들을 일구어오게 되었다.

전여대협 또한 많은 연대 투쟁의 경험 속에서 그 성과점을 총화하면서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 연대조직을 일구어가게 되었다.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 연대조직을 건설하고자 89년 처음 건설준비위라는 모임을 결성하기전까지 우리 여학생운동의 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여대협 건설을 준비한 6기까지의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건준위 제7기를 건설 제1기로 일대 도약하려는 지금 시점을 살펴보자.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진보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씨클을 운영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 나갔다.

84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회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TOMBOY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등)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비합씨클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헌법철폐, 군부독재타도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개정 투쟁등 민주헌법에서 담겨져야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군부독재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86년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이 발생하였다. 많은 여회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남아있는 간부들이 결의를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학내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투쟁을 통해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87년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서여대협)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서여대협 발족이후 각 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 집행해 갈 조직을 건설해 왔다.

이미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88년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대준올림픽 반대투쟁을 여성단체들과 공동투쟁으로 벌여내었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AIDS추방운동도 함께 벌였다.

이후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잇따른 여러 지역 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89년 평양축전에 제7센터 참여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많은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여대협)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전여대협 건준위 결성 이후

89년은 여학생운동에 있어 질적전환의 시기였다. 축전투쟁을 계기로 여학운은 청학운에의 자기내용으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여대협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 여학운은 전국적 조직을 내어올 준비를 하고 이념에 따른 여학생대중운동, 대중투쟁을 벌일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총화시켜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을 정치세력화할 그릇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건준위 6기까지 시기의 활동상을 살펴보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89년 평축참가 투쟁을 벌이면서 여학운은 청년학생운동에의 자기내용으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면서 부문운동으로서 여학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정치투쟁을 개척, 고민하게 되었으며 여학생운동의 투쟁성이 고양되었다. 무엇보다도 고립, 분산된 여학생운동 조직의 결집을 이루어낼수 있는 전여대협회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는 성과를 안아왔다.

90, 91년에는 전여대협 간부수련회를 벌여내면서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그로인해 지역단위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안아왔으며 전국적인 정책단위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만들어 낼것을 결의하였다. 서여대협에서 제기한 취업차별 철폐투쟁을 함께 벌일것에 대한 논의들을 이루어내고 또한 지속적인 지역사업교류를 고민하게 되었다.

92년에는 김보은, 김진관석방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궈내면서 사회단체들과 공동대응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점을 내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총선, 대선과 결합하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로부터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넓게는 민주정부의 상속에서 성폭력의 제도적 제재, 모성보호의 제도적 보장등 여성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대선투쟁을 전개하였다.

93년에는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시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었고 함께 투쟁했던 많은 여성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는데 이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조직을 중심으로 세워내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94년에는 양애리학우 구명운동을 벌여내면서 내 옆에 있는 학우의 아픔을 나누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환기시켰다. 그러나 투쟁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내지 못하고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모색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역적인 한계와 함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한 조직이 투쟁속에서 건설된다고 하였을 때 전여대협은 건설준비단계에서 이와 같이 시기별로 제기된 큰 투쟁속에서 많은 한계점과 함께 내부적 성과점들을 가지면서 일구어온 조직이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매년 수련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전여대협 건설을 위한 토론과 여학운의 방향과 투쟁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전여대협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지역여대협의 상황을 총화하고 지역사업의 교류를 통해 모범을 발굴, 전파하려고 하였으며, 지역여대협의 올바른 자리매김으로 전여대협 건설의 기틀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논의력있는 대표자회의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여학운의 통일적사상을 내어오고 명실상부한 지도조직으로서 전여대협의 위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전여대협이 학우들과 여학생회 일꾼들과 결합한 장은 주로 전대협, 한총련 출범식과 같은 전국의 백만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한마당'이라는 형식을 빌어서였다. 한마당의 자리를 통해 기간의 활동과 함께해 왔던 투쟁을 총화하고 더욱더 투쟁의 결의를 드높였다. 나, 내단위만의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내용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다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단위마다의 모범을 들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하는 결의와 힘을 받고 헤어지고는 하였다. 하지만 단위에서부터 내용성 있게 준비되고 모아지는 자리로서는 부족함을 많이 보였다. 주로 준비는 행사가 있는 지역단위에서 준비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여대협 건설을 모색하며

이제 지역조직 강화에 기반한 전여대협 건설로의 기간의 과정을 약평하면서 전여대협 건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시기에 왔다고 할 것이다. 전여대협 6기까지 일구어온 지역 여대협의 안정적인 발전의 성과를 받아안으면서 전국적 연대조직의 일대도약을 일궈야 할 때이다.

작년 전여대협 건설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론으로 도출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였고, 94년 전여대협 대표자들의 결의는 각기 전여대협 건설의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데 원동력이었다고 할만 하다.

전여대협이 이전처럼 시기적 큰 투쟁에서만, 그리고 한마당이나 수련회와 같은 행사속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기층에서 존재하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지구, 혹은 지역단위에서 총화해내고 그것이 전여대협 회의속에서 다시 논의가 심화될 수 있는 지도단위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층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여대협회의에 임하면서 지구단위든 지역단위든 결정된 사항에는 책임을 지는 여학생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상층 단위에서도 기층의 문제의식을 잘 파악하고 논의를 심화시키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공히 연대조직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범의 전파'를 통해 각 단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함께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운동으로서의 틀을 잡아내고 우리의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해야 할것이다.

전여대협 '건준위'에서 '건설'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이름뿐만이 아닌 전여대협 건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통큰 단결로 힘과 지혜가 모아질 때 여학생운동은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토론과제 >>

지금까지 기간 전여대협 건준위를 결성하기까지의 여학운의 움직임, 그리고 건설준비위를 꾸리고 제6기까지 투쟁속에서 조직의 틀을 다져왔던 기간의 활동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제 각 지역단위에서부터, 기층단위에서부터 전여대협 건설의 필요성과 그 의미들을 논의해보자.

#전여대협 건설의 의미속에서 각 기층에서 할일들을 토론해 보자.

#전여대협이 해야할 일을 논의해보자.(기층의 요구..)

95년 역사적인 해에 서여대협이 전여대협을 받아안

으려고 하는가?

전여대협 건설의 요구는 어느해에나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작년 94년이였다. 전여대협 중앙위속에서 중앙위회의를 보좌할 중앙집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중앙위회의가 내용적으로 심화되고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생산적인 중앙위회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도단 위로서의 올바른 전여대협의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중앙집행위가 요구되었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체의 의지로 지역의장들이 이후 전망속에 전여대협 집행위로서의 결의를 모아나가게 되었다.

전여대협 건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95년 전여대협을 어디에서 받아안을 것인가의 논의는 중앙내에서 신중하게 논의 되었다. '건준위'에서 '건설'을 하는 단계에서 조직의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올 수 있는 곳, 주체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곳,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은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고자하는 이유를 올 정세와 주체적 상황에서 몇가지 들어보자.

하나, 지역적 조건의 유리함이 있다.

서울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정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여러 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작년 부경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으면서 지역적인 한계가 많이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할 투쟁, 여론화되어야할 사안에 있어서도 중앙집행위조차 부재한 상태에서는 지방이 가지는 취약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을 때 원활한 여대협사업의 전개와 전국적 여론화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

둘, 시대적 역사적 요구이다.

95년. 어느 단위, 어떤 조직에서도 통일을 얘기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비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사회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원활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단체, 조직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갈때 내용을 폭넓고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llegible]

통일원년 3월 23일에 드립니다.

◁◁◁ 추천서 ▷▷▷



◁◁◁ 이선희 ▷▷▷

72년 서울출생
91년 송곡여자고등학교
92년 경희대학교 수학과 입학
1학년 여학생 대표 역임
93년 수학과 여학생회장 역임
94년 문리대 여학생회 기획부장 역임
95년 경희대 제9대 총여학생회장
제9기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

50만 여학도의 자주여성의 삶을 개척하고자 피땀 흘렸던 전여대협 건준위 6기까지 선배님들의 성과점들을 이어받고 다시 한번 명실상부한 지도조직으로서의 전여대협 건설 1기를 결의하면서 위 사람을 '95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여학생운동의 믿음과 확신으로 힘있게 추천합니다.

번호	이름	학교 및 직위	서명	추천의 말

제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준위) 선거관리위원회